

2020년 12월 1일(화)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요한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321장	다같이
기도	심재성 집사	
성경봉독	에베소서 4:13-16	인도자
설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요한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같이
찬송	452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321장 - 날 대속하신 예수께

1.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2.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3.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후렴

452장 -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2.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3.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후렴

12월 2일(수) 기도 담당 : 배선희 집사

◆ 오늘의 말씀 < 에베소서 4:13-16 >

-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12월 1일(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영적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영적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새문안교회가 맡겨 주신 시대적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전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모든 교역자들, 당회원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혼란하고, 나라 안팎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수 있사오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통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도 불쌍히 여기시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흠어져 생활하는 새문안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은혜로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